

# 작은 마음

제 2063호 2019. 1. 13. 주님 세례 축일

제1독서 : 이사야서 42,1-4.6-7 또는 40,1-5.9-11

제2독서 : 사도행전 10,34-38 또는 티토에게 보낸 서간 2,11-14; 3,4-7

복음 : 루카 복음서 3,15-16.21-22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먼저 다가가서

† 찬미 예수님!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16지구 오류동 성당  
김종우 엘리야 신부님

아마 우리 친구들은 성당에서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죄도 없으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어울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귀고 싶은 친구에게 다가가야겠죠. 예수님도 바로 죄를 지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신부님과 친구들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고 계세요.



담당\_ 이서진 엘리사벳

그래서 신부님은 우리 작은마음 친구들도 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스스럼없이 먼저 다가가서 함께 해주고 도움을 준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많은 은총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나요?

- ① 물
- ② 기름
- ③ 성령
- ④ 성수
- ⑤ 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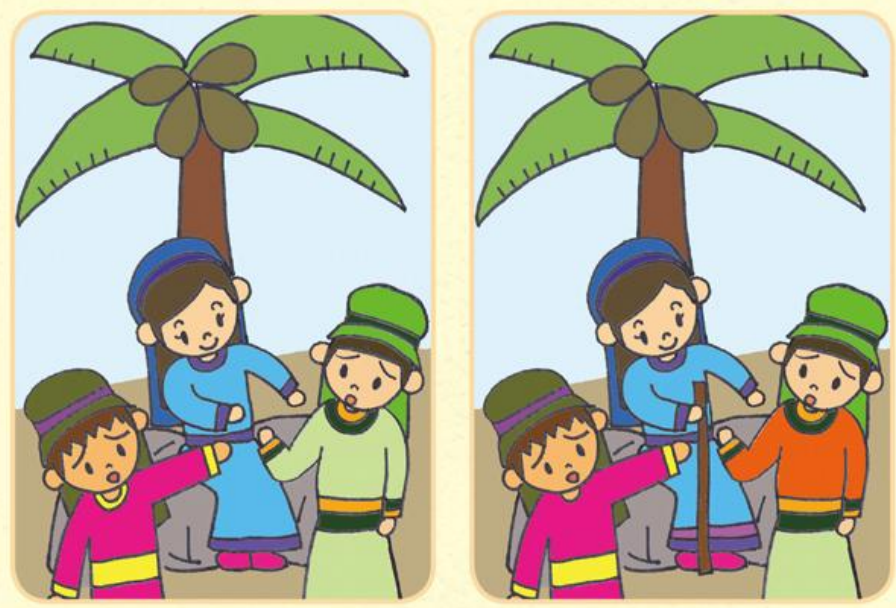
♥ 우리 집에서 놀아요, 예수님! ♥



### 판관 드보라와 그의 장수 바락 1 (판관기 4,1-5)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다. 그때에는 라피돏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판관이었다. 그가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

\* 두 그림을 보고 다른 부분 5군데를 찾으세요.



담당\_ 송민경 도론테아



글/그림 : 김영란 베네딕도





## 항상 기도하는 마음



목동 성당 유치부  
이지후 소피아

우리들 숨씨는 어린이,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부모님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소개하고 싶은 글, 그림, 사진 등을 주보 앞면의 주소지 또는 스캔처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주보에 실린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 복자 돌보기

#### 복자 심아기 바르바라 (1783-1801년) / 신분: 동정, 순교자



복자 124위 초상화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경기도 광주 태생의 심아기 바르바라는 오빠 심낙훈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후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바르바라는 성인들의 모범에 감동하여 결혼하지 않고 하느님께 동정을 바치기로 결심하였고, 조용히 집안에서만 지내며 교회의 법규를 지켜나갔지요. 1801년 신유박해로 오빠가 체포되어 무안으로 유배되었고, 곧 본인도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어요. 마침내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스스로 그들 앞에 나아가 천주의 성스러운 뜻에 순종하겠다고 신앙을 고백한 후 한양으로 끌려갔어요. 이후 포도청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며 모진 형벌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1801년 18세의 어린 나이에 순교하였어요.

담당\_ 김연재 열리사벳